

울고, 웃고, 넘나드는 국경살이: 나의 태국-미얀마 국경지역 현지조사

문화인류학과 이상국

SOUTHEAST ASIA



동남아시아 지도





Thailand-Myanmar border(Umphang)



Thailand-Myanmar border(Mae Sot)



Thailand-Myanmar border(Mae Sot)



Thailand-Myanmar border(Mae Sot)

- ▶ 동남아시아와 관계 맺기와 난민촌에 들어가기
 - 미얀마 이주민과의 만남
 - 종족갈등 문제 관심
 - 현지조사를 어디에서 할 것인가?
 - 에베레스트 간 신문기자 이야기
 - 왜 난민촌 갔느냐
 - 지도교수가 가보라고 해서

- ▶ 난민촌 생활: 1999년 12월, 2000년 2월-4월
 - 난민촌을 찾아서
 - 처음에 흥분
 -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해보다니, “위대한 인류학”
 - “나를 버리자, 성자가 되리라, 모든 난민과 친구가 되리라”
 - 시간이 지나며
 - 짜증과 환멸을 자아내는 주변의 난민들
 - 두려움, 즐거움의 교차
 - 미래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
 - 난민촌 안팎의 연계
 - 도시 난민, 도시 이주민, 국경, 국경을 넘는 이주, 해외로 이주하는 난민



▶ 박사 과정 현지조사 준비

- 방학 때 방문
- 현지조사 지원비 신청
 - NUS, 한국동남아학회에서 지원
- 연구비자 신청
 - 출라롱콘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방문연구원 자격
 - 연구 프로포절 수정
 - 비자 기다리면서 연구 수행
- 아내를 데려갈 것인가, 말 것인가

▶ 현지조사: 2004년 7월-2005년 7월

◦ 매솏에 도착한 첫날

- 서럽게 울어버린 아내, 회색빛의 도시, 막막함, 어떻게 살아가나
- 괜히 데리고 왔어...

◦ 집을 얻는 과정

- 인도계(시크교도) 주인, 상인, 폭넓은 관계망

◦ 현지인과 관계 맺기

- 기존에 알았던 카렌족 공동체
- 조사활동으로서 스포츠
 - 축구, 달리기

▶ 언어 문제

- 일상에서 사용해야 하는 언어: 태국어, 카렌어, 버마어, 영어 그리고 한국어
- 초기에 집중적인 언어 공부
 - 카렌족 연구 조교를 통해 카렌어, 버마어 2시간씩 매일 배움
- 복잡한 언어환경을 정리해야 할 필요
 - 태국어를 주로 사용

▶ 변화하는 현지인

- 글로벌 시대, 영어를 말하려는 현지인/난민
- “순수한” 현지인, “자기 문화를 지키는” 현지인?
- naïve한 연구자 vs 변화하는 현지와 현지인

▶ 연구 방법

- 처음에 설문지 배포
 - 윤리문제 대두
- 참여와 관찰
 - 카렌족의 행사 대부분 참여
 - 저 외딴 곳 국경지역에서 열린 행사 참석하려다가 된통 고생함
 - 난민촌도 자주 방문
 - 틈난 나면 오토바이 타고 국경에 나가기
 - 밀수꾼들과 안면 트고, 친해지기
- 만난 사람들
 - 군수, 이민국장, 경찰, 공장주, 농장주, 미얀마 정치지도자, 이주민 학교 교장, 선생, 학생들, 일반 이주민들, 일반 태국인, 무슬림, 국제 NGO, UNHCR 등등등
 - 고위급 인사는 집주인이 소개, 사업가들은 사업가 친구가 소개, 이주민 관련 기관이나 사람은 카렌족
 - 꼬리를 물고 연결되는 관계망
- 연구 조교 고용
 - 본인의 이야기 주로 경청
 - 본인 주변 사람들 이야기 경청
 - 연구 task도 부여
- 가족(아내)의 도움

▶ 국경사회와 현지조사

- 일상적인 경계넘기
- 실질적인 초국가적 공간의 형성
- 이주민, 난민이 섞이는 공간
- 합법, 불법이 섞이는 공간
- 다양한 종족이 섞이는 공간
- 이것을 담아내는 조사 방법
 - Nomadic fieldwork
 - Multi-sited fieldwork

▶ 조사일지 쓰기

- 의례를 지키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쓰기
- 자신의 감정도 기입할 것
-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쓸 것
 - 실제로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음
- 논문과 관련된 단상들, 아이디어들 기록

▶ 조사 마지막 시기

- 초조함
- 전략적인 자료 모으기

▶ 몇가지 에피소드들

- 경찰 단속에 자주 걸림
- 오토바이에 얹힌 해프닝
- 나를 버리고 떠나버린 카렌족 운전 기사
- 태국인 이름으로 미얀마 국경 도시 돌아다니기
- 큰 기대, 단출한 환송식
- 떠나는 날 ATM에 먹힌 은행 현금 카드

▶ 현지에서 돌아와서

- 자료 정리
- 검색 가능하도록 자료를 디지털화
- 조사일지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재배치
- 자료와 이론을 연결시키는 작업
- 추가 현지조사

▶ 논문 작성

- “태초의 말씀”처럼 아득한 논문의 첫 문장
- 논문을 쓰게 만드는 것은, 지식의 축적인가, 용기의 축적인가
- 규칙적인 글쓰기
 - 아침 9시-저녁 6시
 - 하루에 500자, 한 달에 한 챕터 목표
- 위로가 되었던 여러 말들

▶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

- 석사와 박사의 연계
- 유학국과 현지의 근접
- 가족 동반
 - 장점
 - 단점
- 공식과 비공식을 오간 연구 방법
- 다점적(multi-sited)이고, 이동적(mobile)인 조사

→ 경계넘기의 현지조사